

Newsletter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진행 리포트
서기 2000년 개교

vol.1
December 1997

창간호

【목 차】

p.2
우리들의 목표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구상~

p.4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이념과
구상을 아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p.6
리쓰메이칸 토픽

p.7
세계의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p.8
세계 18개국 46대학·연구기관과 연결된
리쓰메이칸 국제학술 네트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젊은이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함께 배우는 곳
— 그것은 바로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입니다.

학교법인 리쓰메이칸이 운영하고 있는 리쓰메이칸 대학은, 서기 1900년에 설립된 일본을 대표하는 사립종합대학입니다. 현재, 교토시와 시가현 구사쓰시의 2곳에 캠퍼스가 있고, 8개 학부에서 약 30,000명의 학생들이 배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법인 리쓰메이칸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대사업으로서, 서기 2000년에 일본 규슈의 오이타현 베후시에 새로운 국제대학으로서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을 설립합니다.

이 신 대학의 설립 목적은, 세계의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젊은이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한 캠퍼스에 모여 함께 배우고, 함께 연마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사회는 정보기술의 혁신과 기업활동의 급속한 국제화를 배경으로, 대규모의 보더리스 시대에 들어서고 있으며,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또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범세계적인 시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다가올 21세기에 지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생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타입의 리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리쓰메이칸이 설립하는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은 이와 같은 활력과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거점으로 양성하여 세계로 배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지역사회 시대에 크게 활약하리라 꿈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젊은이 여러분,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카모토 가즈이치

학교법인 리쓰메이칸 부총장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학장 예정자

리쓰메이칸 아시아

「아시아에 세워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열린 대학

우리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이 지역의 지속적·평화적 발전과 공생에 공헌하는 국제적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구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약 50여개국·지역에서의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50%씩입니다. 또한 3분의 1 이상이 일본인 이외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밀도높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입학시기는 4월과 10월 2번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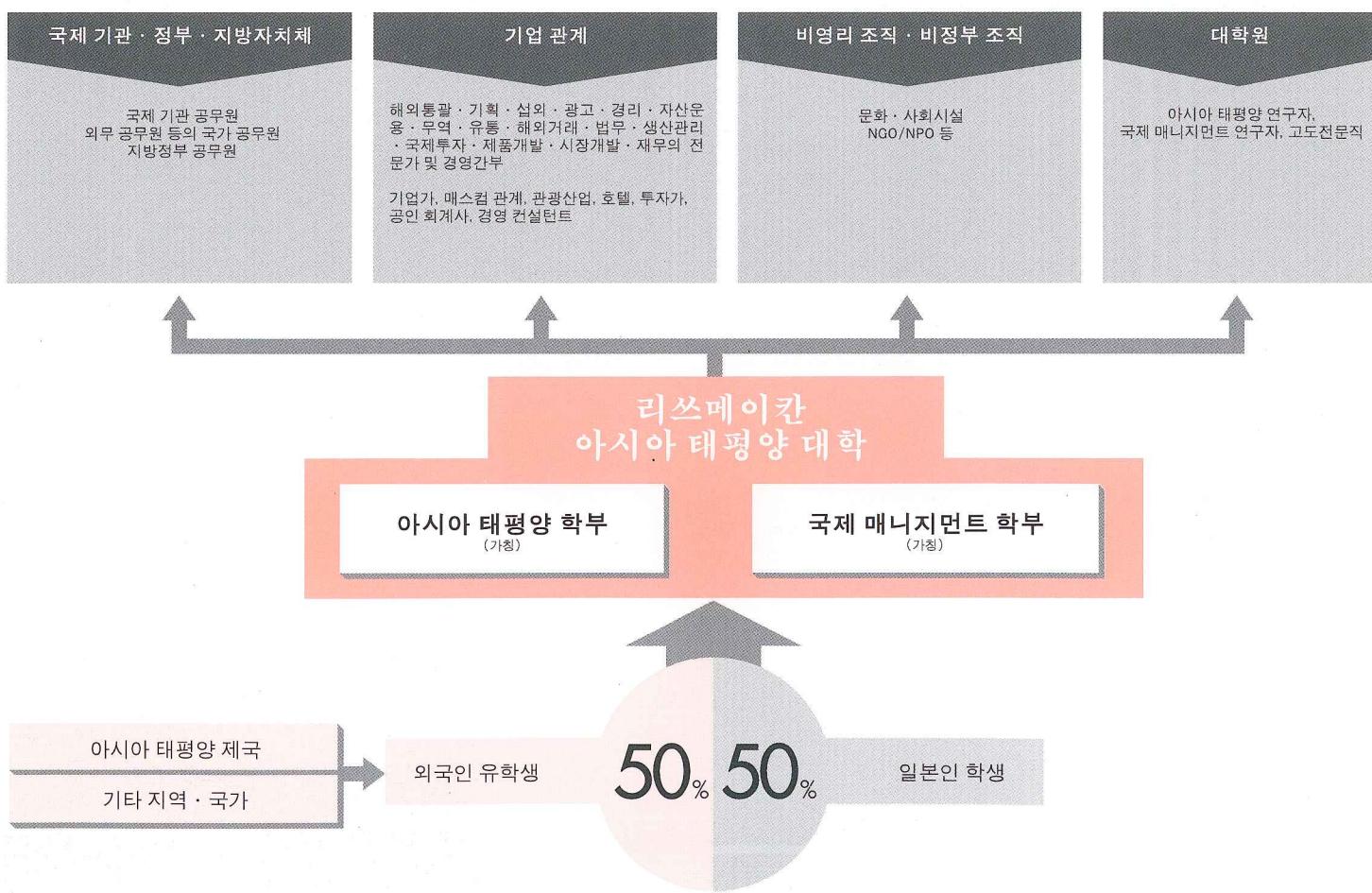
본 대학의 교육 시스템의 첫번째 특징은, 영어와 일본어의 두 언어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두번째 특징은, 국제적인 학생구성의 특징을 살려, 학생들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상호이해를 깊이하고 전공분야의 학습을 연마해 나갑니다. 세번째 특징은 학생이 배운 성과를 사회로 발신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평화적 발전에 공헌하는 2개 학부

—「아시아 태평양 학부(가칭)」과 「국제 매니지먼트 학부(가칭)」—

본 대학의 교육목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본 대학의 학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의존관계와 발전의 다이너미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교류 수단으로써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기기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학습상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써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이해와 학습기능을 습득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학부와 국제매니지먼트학부의 2개 학부에서 전문 분야의 학습을 연마해 나갑니다.



태평양대학의 구상

다면적이며 풍요로운 지역 이해를 기초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아시아 태평양 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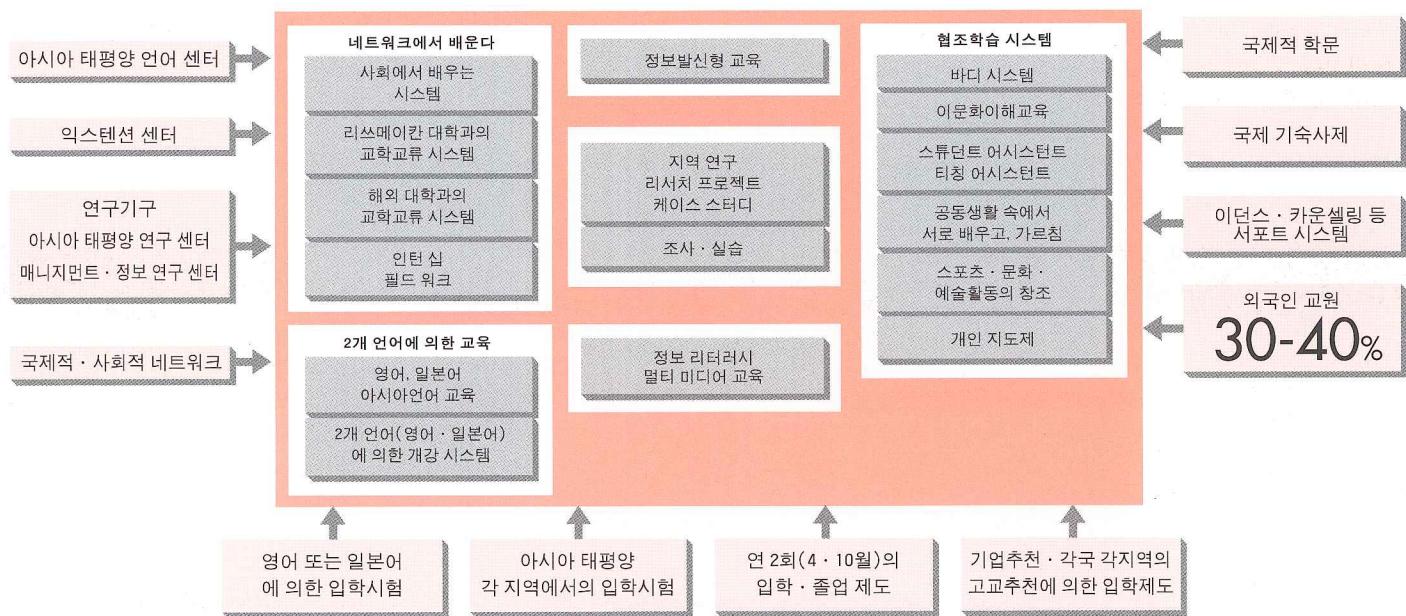
이 학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회를 이해한 후, 그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산업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인재를 육성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회학, 다문화 사회론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스템론 등 아시아 태평양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을 1·2학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과 관광, 정보 미디어, 도시와 환경 등의 프로그램을 3·4학년에서 배웁니다. 이 학부에서는 강의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연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연수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을 채용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에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하는 「국제 매니지먼트 학부」

이 학부는 아시아 태평양의 비즈니스 사회에서 지도력을 갖고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합니다. 따라서, 우선 경영학, 경영전략론, 아시아 태평양 매니지먼트론 등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을 1·2학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기업

재정, 생산과 로지스틱스, 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3·4학년에서 배웁니다. 이 학부에서는 강의는 물론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는 '케이스 스터디'와 기업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인턴십'을 중시한 학습방법을 채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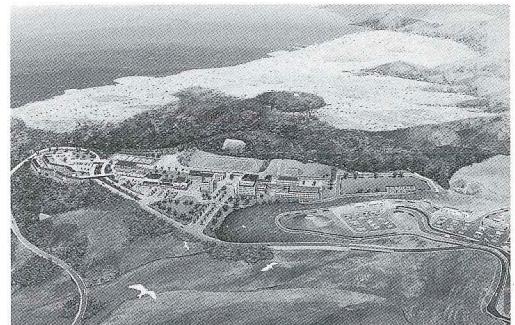


공과 사의 협력으로, 세계로 개방된 캠퍼스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설치는, 규슈 오이타현 및 벚푸시의 미래상에 입각한 지역사회의 강한 요청에 호응하기 위해, 전례없는 대형 공사 협력방식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슈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슈에 포함되어 있는 오이타현은 아시아 경제 · 문화권의 새로운 거점조성에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벚푸시는 「국제 관광온천 문화도시」로서 더욱 더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은, 평화로운 대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풍요로운 자연이 숨 쉬는 땅, 벚푸시 주몬지바루에 설치됩니다.

자연환경 · 관계와 경관이 조화된 캠퍼스에서 세계 50여개국에서 모여든 학생들이 지성과 감성, 우정과 신뢰를 키우면서 성장해 갑니다.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이념과 구상을 아시아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번 여름, 아시아 태평양의 12개국과 지역을 방문하고~



지도 유지

학교법인 리쓰메이칸 상무이사(교학담당)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부학장 예정자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참으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그 활동내용을 보고합니다.

저희들 리쓰메이칸의 교직원은 이번 여름,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일본국 오이타현 벳푸시)의 이념과 구상을 세계 각국·지역의 여러분들께 폭넓은 이해와 여러가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각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의 12개국·지역의 4000이 넘는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처는 각국 정부와 지방의 교육행정기관, 대학, 고등학교, 교육관계의 재단,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종다양한 기관이었습니다.

모든 방문처에서도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열심히 설명을 들어주셨으며,

또한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대학의 이념과 구상에 찬동하시는 뜻을 보내주셨고, 앞으로의 대학창설 사업의 진척에 맞추어 구체적인 협력·제휴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방문의 특징은 첫째, 일본의 대학과 그 제도, 혹은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구상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대학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내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협력관계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들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였던 각국·지역에서의 유학생에 대해서, 100개교가 넘는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각국 계 150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기관, 교육기관, 관계단체로부터 협력의 의향을 보인 것입니다.

셋째는 교육이나 연구 교류에 대해서도, 방문한 대학이나 연



각국 방문그룹의 의견

● 중국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이념과 구상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학교·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까지,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로부터 찬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방문처에서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과 협정을 맺어 유학생 배출에 협력하고 싶다」「부속고등학교와의 교류도 검토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익숙지 못한 이향의 땅에서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이념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 한국

한일합병기업을 비롯해 30개소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필감으로는 어느 일본계 기업이,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개설이 실현될 때에는 「유학생추천입학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문처에서는 이것이 화제가 되어, 몇 개의 기업에서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꿈과 이상이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한두분이 아니었고, 작은 힘이지만 한일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구미제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서도, 방문한 그날 바로 협력을 쾌락해 주신 교장선생님도 계셔서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고, 국가가 도시 곳곳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국기는 말레이시아 독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심벌로써 압권입니다.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개설에 새로운 기개가 선 날이 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일본어학교, 기업, 관청 등 34기관을 방문하고, 5기관에서 유학생 파견의 협력표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는, 이러한 설명으로 일본의 대학 교직원이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열심히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구상을 경청해 주셨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매우 깊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실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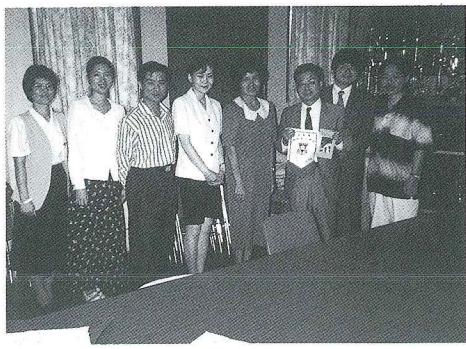
● 태국

고등학교 층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일본어를 개강하고 있는 고등학교 많았으며, 이러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장래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선생님들로부터도 적극적

으로 학생들에게 권해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화제는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이 일본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수강할 수 있는 점과 장학금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리쓰메이칸의 전력을 다해 장학금에 대해서 노력하고, 일본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노력할 결의입니다.

● 필리핀

15대학·고등학교, 4기업, 대사관, 교육성 등 6기관을 방문하여 기대 이상으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두 일본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전에는 필리핀에서 유학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주 힘들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구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의향을 보여, 각국과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더욱 넓어진 점입니다.

넷째는 방문한 민간기업과 단체 등에서 학생 인턴십을 채택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장학금제도 지원, 장래 취직 등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저희들 자신이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에의 두터운 기대와 요망에 접하여, 진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생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을 설립하는데, 여러분의 지지하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통감한 것입니다.

저희들 리쓰메이칸의 교직원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가와 지역을 방문하여 명실공히 국제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대학



을 창조해 나가리라 결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따뜻한 협력과 격려, 그리고 엄격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문으로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핀 고등학생의 일본유학 희망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설립에 힘쓰겠다고 새로이 결심했습니다.

● 베트남

베트남은 교육을 국가사업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재육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신뢰도 두터워 우수한 유학생 파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찬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일본에의 유학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 등 취학원조를 기대한다는 강한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모두 근년들어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일본어 교육에 대한 열의도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에 있어서 외국어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것이 일본어라고 합니다. 많은 고등학교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협력의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교육재단은 유학생의 도항비 원조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RITS APU TOPICS

리쓰메이칸 APU 토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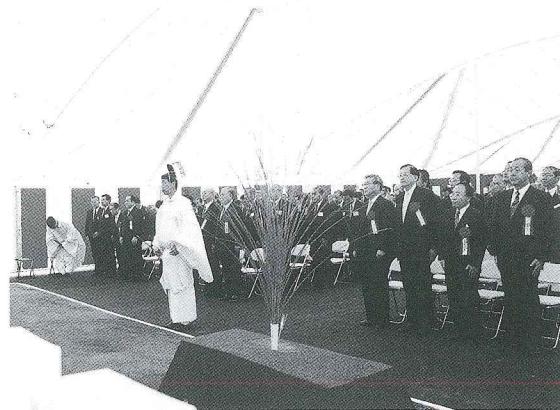


● 캠퍼스 기공식 거행

祝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設置事業造成工事起工式



2000년 4월, 규슈 · 오이타현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설치사업 조성공사 기공식이 1997년 10월 18일(토) 오전 11시부터 캠퍼스 건설지인 벳푸시 주문지바루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기공식에는 설계관리의 주식회사 야마시타 설계, 시공자인 구마가야구미 · 사토 베넷크 · 아베구미 공동기업체, 히라마쓰 모리히코 오이타현 지사 · 이노우에 노부유키 벳푸 시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 건축주인 본 대학에서는 오나미 마사테루 총장, 가와모토 하치로 이사장, 사카모토 가즈이치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학장 예정자 등, 총 약 200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건축주를 대표하여 오나미 총장의 인사가 있었고, 「21세기 대학의 모델 중에 하나로만 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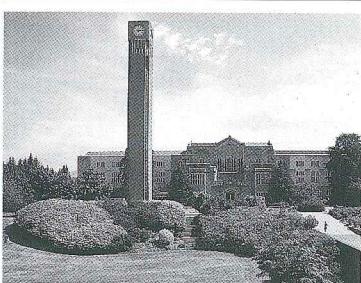


● 오이타 · 벳푸 사무소 설치

캠퍼스 조성공사를 드디어 착수하게 된 것과, 지역 내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에 「리쓰메이칸 오이타 · 벳푸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으로부터
오나미 마사테루 총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1997년 5월 30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의 춘계졸업식에서, 스트랭그웨이 UBC 학장으로부터 오나미 마사테루 총장에게 명예 법학박사학위가 증여되었다. UBC와 본대학은 1987년 이후, 해외 세미나, 1년간의 학생교환유학, 1991년부터 시작한 리쓰메이칸·UBC 조인트 프로그램 등으로, 국제교류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오나미 총장이 양 대학의 교류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헌함에 입각하여, 연구자로서의 국제적인 공헌, 총장으로서 일본의 고등교육과 국제학술교류에 대한 지대한 공헌에, 상기의 칭호가 증여되었다.

필리핀

오나미 마사테루 총장, 필리핀 명예영사에 취임

Domingo L. Siason, Jr. 필리핀 공화국 외무대신으로부터 오나미 마사테루 총장에게 필리핀 공화국 명예영사취임 요청이 있어, 오나미 총장은 이를 수락했다. 1997년 3월 10일 도쿄 시부야에 있는 필리핀 공화국 대사관에서 Alfonso T. Yuchengco 필리핀 공화국 주일대사 입회하에 수락의 선서와 서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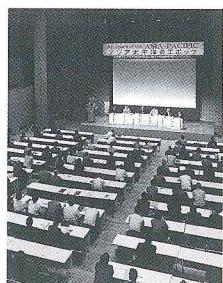


국제학술 심포지엄 「아시아 태평양 에폭」을 개최



1997년 6월 21·22일 이틀에 걸쳐, 국제학술 심포지엄 「아시아 태평양 에폭」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교육계, 경제계, 매스컴, 지역 등 국내외의 다방면에서 모두 20명에 달하는 패널리스트를 초대되어,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이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연구분야인 「아시아 태평양학」의 구축과 21세기의 인재육성과 이 대학이 짚어질 역할 등에 대해서 폭넓은 방면에서 제언을 받았다.



기도 한 조분자공학기술의 장래전망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다. 기조강연을 한 오나미 마사테루 총장과 함께 지구적 규모의 시야로 과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리쓰메이칸 대학 체육회 럭비부, 한국·경희대학 럭비부와 교류시합

1997년 5월 22일, 본 대학 체육회 럭비부와 한국의 경희대학 럭비부의 교류시합이 있었다. 경희대학 럭비부는 한국의 대학선수권 2위(1997년 봄)라고 하는 강호로서, 대전은 2시합이었으나 모두 경희대학이 승리로 돌아갔다. 본 대학도 선제 공격을 뺏는 등 건투를 보였으나, 후반에 역전되었다. 본 대학과 경희대학과는 지금까지 축구, 농구의 교류시합과 전통예능의 공연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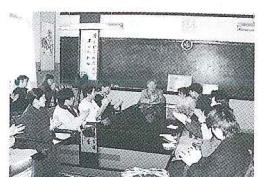


리쓰메이칸 대학 중국연구회, 중국의 북경 대학 일본어클럽과 학술교류



1997년 5월 15일 아시아의 노벨상 수상자를 초대하여 리쓰메이칸 노벨·포럼 「21세기 아시아 과학의 꿈과 희망」을 개최하였다. 패널리스트로는 물리과학자인 李遠哲 대만 중앙연구원 원장과 프랑스의 생화학자인 僧·마리레인 루이·페스트루 대학교수. 李원장은 아시아 경제의 금후의 발전의 과제에 대해서, 마리레인 교수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본 대학의 학술계 서클인 중국연구회는 1997년 2월 18일부터 9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북경 대학 일본어 클럽과의 연구교류를 하였다. 중국연구회는 현재 약 40명의 학생이 소속하고 있으며, 한시·중국어 회화, 중국사회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나 「책상 위에서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중국을 피부로 느끼고 연구를 추구하자」는 목적으로 이번 교류를 실천.



Advisory Committee

세계의 어드바이저리 커미티 멤버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설립의 취지에 찬동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원·협력과 조언을 해주시는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는 세계 각국의 원수를 비롯하여

각국의 주일대사와 일본·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인, 그리고 문화인 등 많은 분들이 취임하고 계십니다.

명예위원



SHANKAR DAYAL SHARMA

인도 전대통령



SOEHARTO

인도네시아 대통령



Dr. 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수상



ANDREAS VAN AGT

네덜란드 전수상



ALBERTO FUJIMORI F.

페루공화국 대통령



FIDEL V. RAMOS

필리핀공화국 대통령



BANHARN SILPA-ARCHA

태국 전수상

앰버서더 멤버



JOSÉ RAMÓN SANCHIS MUÑOZ

주일 아르티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ASHTON CALVERT

주일 오스트레일리아 특명전권대사



WISBER LOEIS

주일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TRUONG MEALY

주일 캄보디아왕국 특명전권대사



김태지

주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THONGSAY BODHISANE

주일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MANUEL URIBE

주일 멕시코합중국 특명전권대사



U SOE WIN

주일 미얀마연방 특명전권대사



MAARTEN L. WEVERS

주일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AIWA E. OLMI

주일 파푸아뉴기니 특명전권대사



VICTOR ARITOMI

주일 폐루공화국 특명전권대사



ALFONSO T. YUCHENGCO

주일 필리핀공화국 특명전권대사



CHAWAT ARTHAYUKTI

주일 태국왕국 특명전권대사



NGUYEN QUOC DZUNG

주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표사무역

히구치 히로타로

아사히비루 주식회사 대표취재역 회장/(사)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히라마쓰 모리히코

오이타현 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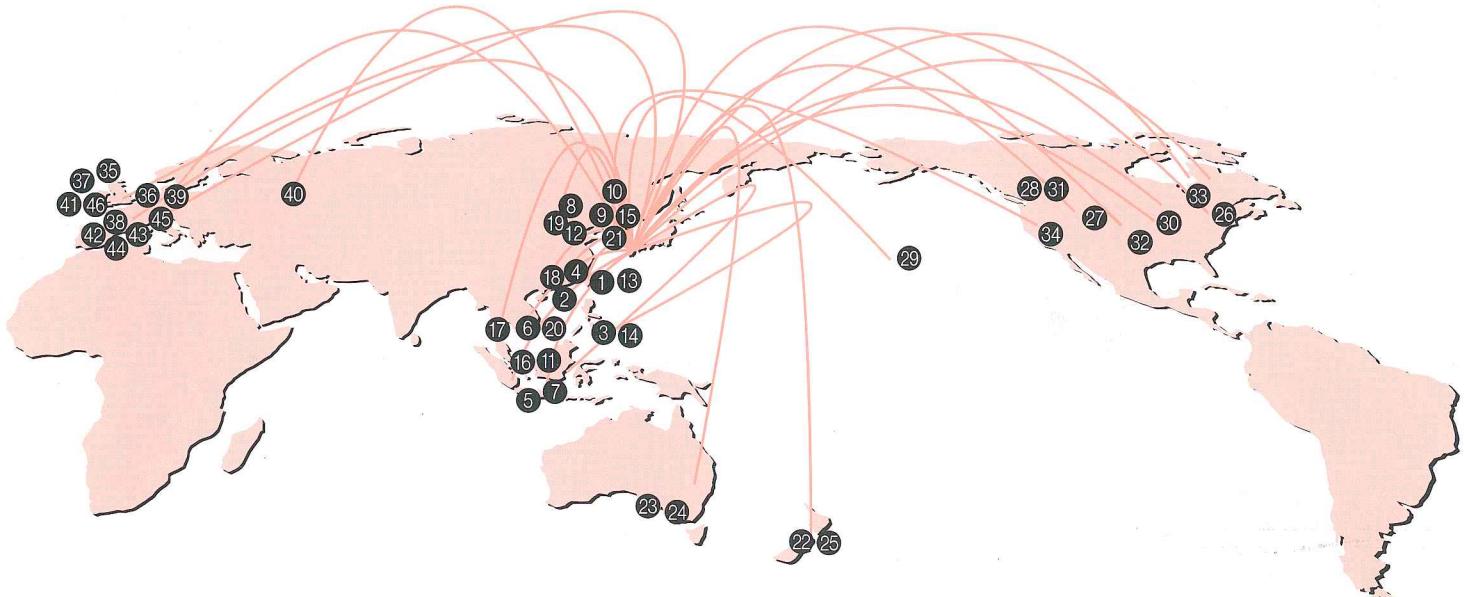
오나미 마사테루

학교법인 리메이칸 총장

기타 1997년 11월 1일 현재, 각분야로부터 180명의 명사들이 어드바이저리 커미티에 취임해 주셨습니다.

「세계 18개국 46대학 · 연구기관과 연결된 리쓰메이칸 국제학술 네트워크」

본 대학은 전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교육과 연구의 창조를 지향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대학 · 연구기관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구성에 힘입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 평화적 발전과 공생을 추진하는,
아시아 태평양 연구에 관한 「The Center of Excellence」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쓰메이칸은, 세계 18개국 46대학 · 연구기관과 협력 · 협정 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 ① Institute of Modern History, Academia Sinica(태국)
- ② 홍콩 종문대학(홍콩)
- ③ 대 라 살 대학(마닐라)
- ④ 화동 사범대학(상하이)
- ⑤ 가자마다 대학(요구야카르타)
- ⑥ 하노이 공과대학(하노이)
- ⑦ 인도네시아 대학(자카르타)
- ⑧ 지린 대학(창춘)
- ⑨ 고려대학(서울)
- ⑩ 경희대학(서울)
- ⑪ 말라야 대학(팔라룸푸르)
- ⑫ 난카이 대학(티안진)
- ⑬ 국립 대만 사범대학(타이베이)
- ⑭ 필리핀 국립대학(케손)
- ⑮ 서울대학(서울)
- ⑯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팔라룸푸르)

[아메리카]

- ⑰ 탐마삿 대학(방콕)
- ⑱ 통지 대학(상하이)
- ⑲ 칭화 대학(북경)
- ⑳ 하노이 대학(하노이)
- ㉑ 연세대학(서울)
- ㉒ 아시아 2000년 재단(웰링턴)
- ㉓ 매쿼리 대학(시드니)
- ㉔ 멜버른 대학(멜버른)
- ㉕ 빅토리아 대학(웰링턴)
- ㉖ APSIA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chools International Affairs)
- ㉗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반코버)
- ㉘ 하와이 대학(호노룰루)
- ㉙ 일리노이 칼리지(잭슨빌)

[유럽]

- ㉚ 에든버러 대학(에든버러)
- ㉛ 베를린 협볼트 대학(베를린)
- ㉜ 런던 대학 유니버시티 칼리지(런던)
- ㉝ 파리 제일대학(소르본)
- ㉞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바르샤바)
- ㉟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모스크바)
- ㉞ 서섹스 대학(브리튼)
- ㉞ 툴루즈 레 미라유 대학(툴루즈)
- ㉞ 툴루즈 사회과학대학(툴루즈)
- ㉞ 투르 상업 대학(투르)
- ㉞ 튜빙겐 대학(튜빙겐)
- ㉞ 워릭 대학(코번트리)

(일파벳순)

<편집후기>

본 뉴스레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우리 리쓰메이칸의 이념과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구상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리쓰메이칸은 2000년에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21세기 사회의 요청에 답하기 위해, 「자유와 청신」의 건학 정신과 「평화와 민주주의」의 교학이념을 지침으로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창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본 뉴스레터에서 이미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립(立)」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대학으로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통해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의 이념과 구상을 이해해 주시고, 동시에 이 구상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으로 보다 나은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을 충실히 내용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URL <http://www.ritsumei.ac.jp/kic/a31/>